



1952년 김동철 씨의 가족사진.
부인 김엘렌나, 아들 김와실리.

어머니의 뜨겁게 눈물

나는 14세 되는해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그때로 벌써 35년이 지났으니 내가에 물도 많이 흐르고 사별도 많았기때문에 나의 기억에서도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의 부친 김동철은 1912년에 원동현강 연태리에서 한 생하였다 그의 초년 시대는 유년시대가 열렬하게 지나갔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그는 1939년에 카나호공화국 크늘오르다 시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년동안 중학에서 교편을 잡은후다가 소련 전쟁시기 1941-1945 기간에는 김병화 1명칭 글노즈에서 당조직원으로 일하였으며,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같은기간 내에 하뉴킨트 국립종합대학 법학부를 통신방법으로 졸업하였다. 파쇼독일을 반대하는 소련인민의 조국전쟁이 끝날 무렵 1945년 8월에 아버지는 소련군대에 초모되어 극동사령부 전선에 배속되어 북한 해방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북한에 들어온후 아버지는 제25군단 정치부 민간사령부 지도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6월 불어는 역시 소군 정치부에서 지도하는 북한 정부 내각고급지도간부학교에서 정치학교원으로 1948년 말까지 일하고 북한에서 소군이 철퇴하여 나간 다음 극적과 광적을 넘겨 북한 공민으로 전격히였다. 그후 공화국 최고 재판소 부소장으로 일하였으며, 6.25 동족 전쟁이 벌어지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조선 인민군 최고 군사재판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던바 1952년말에 전면부대의 사임시찰중 아주 심한 포격을 당하면서

어렵던 공상을 없게 되어 오쓰코바로 속송되어 3개월 동안
 죄를 받으나 결국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동족 상쟁이 끝
 난 직후 아버지는 권근되어 월로성 치관 겸 정회국장으
 로 임명되어 1957년 말까지 지내던 북한에서 사상
 검사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어 벌써 수백만 명이
 월적 혹은 혹은 언광생이나 농촌에 추방되고 있으며 1958
 년 봄에 아버지는 월로성 치관 직책으로 불려 출직되어
 고북성 출판사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당년 10
 월에는 그 자리에서도 출직되어 집에 앉아 있던데서
 소련에 귀국할 수속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1948년에 조선국적으로 전격 한사한
 이기때문에 먼저 조선국적에서 제적되어야 또 다시
 소련 국적으로 넘어갈수 있게 되었다. 북한 정부는 차일피일
 하여서 제적 수속을 끝다가 1958년 12월 30일에는
 정치안전부 군관 2명이 우리집에 와서 당중앙 간부부를
 호송한다고 하여서 아버지를 모시고 간혹 나는 아버지를
 다시는 못보았다. 그후 일주일 지난다음 정치안전부 군관
 2명이 우리집에 와서 모든 짐작, 책들, 무엇이나 집안에 있
 는 모든 물건을 다 수색 검열한 다음, 모로 한 방에
 걸어 장치고 출입문을 잠구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권총
 한자루와 출근시 가지고 다니시던 들라방, 수첩들은 몽땅 버리고
 가면서 "집은 하나로 다치지 말라고" 하였다. 집에는 그 외에
 또 또 권총 한자루가 있었더라 "그 권총은 아버지가 소련
 군대에서 이 북부서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어머니는 알뜰하
 시면서 그 권총을 문밖에서 석한줄이 있었더라 거기 석한

일에 그것을 파놓았다. 이렇게 집에 있는 모든 가정등을 전부를 몰수당한 다음 어머니는 소련대사관에 달려가 방포를 요청하였던바 (당시까지 어머니의 극적인 소련극적이었다) 그후 2-3일이 지난다음 우색 볼슈라에 왔던 군관들이 다시 와서 부분적 짐들, 주로 아이들 물건과 어머니의 물건 열개 간 도록 가져갔다. 그때에도 겁이 나서 어머니는 권총에 대 어머니도 어수살로 못하였다. 그후 약 10일 지난다음 몰수한 우리 집을 전부 다 빌어간 다음 우리 사택 2방을 압수하여 다른 가족에게 넘겨 주었던바 그 가족이 바로 박영빈의 가족이었다. 당시 박영빈도 당중앙 조직부장 겸 정치위원까지 하던 북한 언류간부가 대외부영 차관으로 뚝 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풀어도 다지 죽지 않고 끈 끈 하게 단 너스며, 어쨌든 결 내를 든 그 집 마리아 어머니가 소련서 나온 아즈너니 들어 다 앓고 단 너는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며 동사육소 열성자로써 치마꼬리를 단 단히 흔들었다. 이러한 치마꼬리 바란은 동사육소 정치안전 군관들에게 아주 될로 하였다. 그것은 소련서 나온 가족들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었다.

박영빈씨의 가족이 벌써 우리 집에 와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박영빈의 아들이 석한 갖이러 석한쿨에 나갔다가 어머니가 감추어 놓은 권총을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것을 알하였다. 마리아 아즈너니는 그 말을 들자 그 즉시에 우리 방에 나와 어머니 하고 물어보리다 "어 집에 동철 선생이 사 용하던 권총이 있는데" 하고 물었다. 그때 나의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그런 것은 절대 없다" 하였다. 그 대답을 들자 마리아 아즈너니는 어어 집리방에 돌아 갔으나 어머니

입장을 대단히 황당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아즈너나가 아버지의 권총을 발견하고 달려나와 슈테르기로 들은 것을 단번에 알아채웠다. 어머니 심장은 세척기 발동기가 돌아가듯 하였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또 짐거 당한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생-사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사건이 없어도 소년에서 나온 간부들에게는 소위 "허가"가 조직한 소년종파 ^{반 김일성} "주테라 준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권총 두자루가 집에 있었으니 그 고소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이 권총 문제를 밤으로 해결하여야 되었다. 내일 아침 9시엔 등사부서가 열리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 문제가 반듯이 밀려날 것은 확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밤 열 시경이 되자 그 권총을 집에 들여다 그것을 싹쓸 보재기나 벗기던 다른 보재기로 그 권총을 사서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권총을 다른 사람들에 보지 않도록 은밀히 가져가고서 대동강에 처넣으라"고 하시었다. 나는 어둠은 밤에 금물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대단히 무섭었으나 눈물겨운 어머니의 눈길로 쳐다보면 이를 깎물고 아무 대답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대동강을 찾아갔다. 이것이 바로 열시라 하여도 정월의 (정월의) 환풍이 되었던바 딱 늦은 시간으로 대동강에는 간혹 사람들에 하나씩 둘씩 보였으나 나는 추심이 가장 깊음직한 다리 한복판에 이르자 책처럼 저래의 밑에다 끼고 가던 물건을 대동강에 처넣고 가깝은 골에 내뒀거나 없은가 하고 도리켜 본다음 계속 선교리 쪽으로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절로 조심스럽게 사방을 도리켜 보면서 왔다.

내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낭독하는 것이었다. 나도 대동교 중학에서 불어 집까지 오는
 동안 떨리는 몸으로 수차 뒤를 돌아보면서 모친의 집에 들어
 선 나는 어머니의 애타운 심정을 알아차리고 나도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없는 울음을 흘렸다. 왜냐하면 길에
 방짱에서 우리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침대에 눕자면 나의 어린동생은 개처럼 눈을 복비면서
 무슨 영문인지 알수없이 어머니하고 나를 쳐다 보다가 역시
 어머니 목을 끌어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목에 대어 달린
 월로자를 어끌어 자기자리에 다시 놓여주곤 어불을 달아
 준다음 낮익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권총을 샀
 던 보재기야다 월로자의 놀음감 "권총" 잘 써서 문방에
 있석한글속 같이 잘 파출업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계속
 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놀음감 권총은 네가 월로자하고 감축
 기 놀음을 놀면서 그렇게 파출은것이라"고 대답하라고 하
 였다 나는 그때 그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심하고 눕어서 자
 다가 깨어나 어머니는 누워서 계시지만 잠이 들지 아니한 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그 어느날 오시경이 되자 드디어 경희안전부 군관 2
 령이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을 나는
 학교에서 오자 보게 되었다. 안전부 군관들은 어머니하고
 집에 있는 권총을 지위적으로 내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권총은 무슨 권총이요, 권총 한자 즉 엽간것을 몰수
 하여 가시고 또 무슨 권총 낚으니까?" 하고 완강하게 대답

하였다. "권총들이 집에 있기는 몇자루 있지만 그거야
 전부다 월로자 놀음같이 아니겠습니까? 하연이 책장, 침
 대 밑에서 또 책가방에서 몇자루 비어 보았다. "어디까지
 권총들은 또 어디에 더 있을것입니다" 하였다. 성이 돌아오른연전
 군관은, "아니 석한굴에 권총 한자루 묻어 놓고, 솔직히 고백하
 지 못하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때에 어머니는
 잠자리고 앉아있으니 완전군관 한명이 밖에서 나가 자기
 손으로 "권총"을 파내놓는 것이었다. 그 군관은 그것을 들고 들어
 와서 어머니 눈앞에서 보재기를 해치니 그야말로 정말
 해재비 "권총"이었다. 군관은 기대와 어그러진 일을 당하고
 났다가 막히었으나, 밑고에 의하여 와서 수색하는 일인고로
 열방 누구로 불러다 증인세울수 없었다. 하느수없이 연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열방아르러니를 불러서 따르 심문하고 그다음
 어머니를 불러가야 하였다. 사실 모후에는 열방집 다르러나와
 4-8 세되는 아이는 잠시간 파출소에 가있었다. 그들이 집
 에 돌아온후 약 3시간 경과한다음 파출소 내무원은 어머니
 에게 호출장을 권하였다. 그런데 그호출장은 파출소로불러가
 아니라 시내부에서 호출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호출장
 을 받아 주니 가슴에서 큰 땀들이 떨어지듯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눈물만 짙솔리고 앉아있었다. 내무원은 돌아서 나가
 면서 "내일아침 9시 정각에 꼭오셔야 합니다" 하였다. 어머
 니는 세상일이 다종 말된것으로 인정하시곤 계속 눈물을 흘리시
 다가 몸을 가시어 정숙한다음 나하고 다뉘과같이 말
 씩 하시었다. "아마 이것이 나를 걸거할 호출장이 분명
 한데, 만약 내가 갔다가 점심때까지 오지않으면?"

하고, 얼마 안되는 돈을 보여줬더니 이 돈에서 얼마만큼
 꺼내며 빙방이나 싸다가 차를 그리며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도 안 보일 또 무엇어런지 싸다가 월로라도 꼭 날우어
 적은 다음, ^{내일 아침엔} ^{7시 방향} 열대를 꼭 잡고, 월로차를 데리고 길을
 물어서 소련 대사관에 가야 된다고 하였다. 「대사관에 가서
 는 눈치 보바르게 소련 아저씨들이 나오면 자서한 이야기로
 하고 대사관 내부로 안내하며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복한
 내무원 수비대에 붙잡히면 끝장이 난다고 하였다.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일하는 모든 방들에
 복도에 앉아 있다가, 직원중 누가 물으면, 아버지, 어머니
 다 걸러줘야 감옥에 가시오 우리는 갈래가 없어서 여기
 왔으나 소련 고아원에 보내며 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공책장에 「아버지 이성영
 생년월일 출생지, 조선 병국 연월일, 아버님 직위, 다음
 역시 어머니의 생년 등」 을 적은 다음 자기는 소련 공민이기
 에 구원하여 달라는 것과 어머니, 아버지가 소련 공민의 적에
 매워있으니 추방하여 고아원에 보내며 달라는 부탁한다는 것
 을 쓰시고 아래에 추돌하시였다. 이 종이장을 나에게
 주면서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부탁한 다음 다만
 대사관에 가서 그 직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하시던
 어머니는 앞은 천 머리수건을 얻어다가 가정내에 있던 전체
 몇 천 안되는 돈을 그다 놓고 몇 번 걸쳐서 감은 다음 그것을
 나의 가슴팍 위에 ^숨 대하시면서 「전체 돈이 타군 이 ^{비밀} 인하여
 조금씩 절약하여 무엇이든 먹을 것을 사서 월로차를 잡것어
 주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소리없는 울음을 아구 시터우게

을르시였던바 어때 어머니의 그 눈물은 나의 팔위에
 흘리고 있을 순간 나는 그 눈물이 몇일전에 남편을 잃고 또 내일
 에는 집어가지 아이들까지 잃어버리게 될 그 눈물은 원한을
 섞은 어머니의 깊은 심정으로 불어 불어오는 눈물이며서 아주
 뜨겁다. 나는 비로써 어머니에 남이는 버렸지만 사립이란
 억울한 헛이에 비하여 남편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
 까지 나에게 부속하게되니 어머니가 그런 뜨겁은 눈물로 흘린
 것이 누구의 죄악어란것을 알게되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뜨 눈으로 지내시고 아침 8시경이 되자
 준비하여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무의를 주고 평양 시내무부에
 가서였다. 나는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신 다음 어머니가 남
 하신대로 방부원대를 방앗으로 잔두고 월로라와 등니서 여러
 먹던 음식물과 같은것으로 놓아 놔두면서 있었다. 그런데 벌써
 간은 2시가 되어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아 나는 방물을 열고 밖
 나가 방방과 호간자 옷가게를 싸가지고 옷은 드림 열방집 아
 러님을 만나니 물기를 「너의 엄마는 어디로 가고 네가 방
 싸우기 갔다? 오를거야?」 하고 물는 말에 나는 대답하리
 「나는 쪽」 하든 모르나, 어니 장약당에 가신것 같다고 대답하
 면서 신속히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허시아 속담에 「불행중
 에도 다행은 꼭 있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는 집에 와 게서
 눈물이었다. 나는 너무도 반감아서 들고 들어오던 방방과 란작은
 식탁위에 뿌려버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월로라로 울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내후
 에서 권총전에 대해서 오래 줄은다가 내가 백하고 계속우기
 할수 없어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리런 가지받고 집에 꼭있으라
 하였다고 하였다.

그후 어머니는 약 6개월간 계속 풍사후호, 내추목등에
호출당하며 다니었다. 호출이 끝나자 우리가족은 화문천에
살리와 서평양 보흥강변 반호굴막 약 6평방 미터하는
방에 억류되었다. 이골에 오니 우리와 꼭같은 형편을 당하고
있는 가정의 주호가 있었다. 그것은 김철성, 김원길의 가
정뿐이었다. 모든 가정들은 6-7평방 미터가 되는 반호굴막, 위생
조건하곤 거리가 1킬로 미터 목욕탕이나 세면 시설같은것은 상상도 할수없는
형편에서 동양기후의 장하철을 지내고보니 무서운 호출과 전염병에 직면
할것이 확연해져서, 아어들이 학교 갈때는 벌쇠가 가까워 오고, 난방장치가
고수없고 또 집을 덥힐 화목이나 한같은것도 없었다. 세집어니
니들은 서로 초이하고, 평양에 계속 이었다하여 남편들에 대한 소식
이나 행방을 알수없는 형편에서 쓰련 대사관을 통하여 쓰련
업국 허락을 받아, 다같이 모스크바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
키로하였다. 그러나 우리 세가족은 쓰련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여 모스크바에가지않고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오게되었다.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정부에 우리가족들의 요구조건들을 해결하여주
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던것이다. 어머니는 우리행적을 대하여 쓰련
에 친척이 없는 조건하에서 약 6개월동안 나의 세방집을 맡아 살면서
우리들은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는 프라소아쓰 공장에서 노동하였다.
반년이 지난이후에 우리들은 세방집에서 여사하여 쓰련의 육한 사회
보장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 사택에 나오게 되었다. 이
나와 동생 월로과은 부담자를 잃은 자손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받
으면서 공부, 대학까지 나왔다. 우리 형제는 지금도, 좀씩 특별이
어려운 시절때나 또 누구의 생일때이면, 남편이 없이 그 타국
한 어머니가, 남쪽 나라로 불어 올리는 소식, 그 남편과의 상봉을 기다리면서

비오나, 눈이 내리나 하루도 비바림없이 그 공기 불결하고 바쁜 운동
 에 열심히 찬각하여 풍도를 벌여 우리 형제를 취세부노라고 그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회생하면 차라리 좋은 안 있는 음식은 눈물어 내리
 고 목이 12에서 먹지 못하고 환음으로 북 "하"게 지내곤 한다. 어서
 나는 30년 동안 계속 낙수하시면서 앞으시다가 끝이 자기 남편
 을 만나지 못하고 가슴에 원통품은채 1988년에 별세하시었다.
 어찌 우리 형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통 들어 들어야 하겠나,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들을 뒤살게 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 누구를
 죽어겠다는 말도 아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그 의 불지는
 꼭 알아야,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있으나 동방예의국의 후손의
 대담을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작년-1994년, 12월 28일
 에 서울에서 열리었던 구국전선 문화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아버지의 6촌 동생 김동태를 만나왔다. 그는 1948년도에
 평양에 오셨다가 나의 아버지를 안락환일이 있었다고 하시었다.
 나는 그이를 찾아서 부산 아르바니네 집에가서 하루밤과 온었다 그때
 그는 말씀하시기를 북한에 같이 멀리게 되면 꼭같이 찾아가서 그
 형님의 증적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는 그때에 대담하
 기를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반역에 원수에라도 힘
 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숨어보지라 하면
 나 비말을 물어뜯어서라도 아버지 일을 해결하고 형님들고 돌아
 가신 어머니의 원통을 들어 그 부모를의 자질답은 보답을 할 것임다
 라고 하였다.

김 와 실 리

김 월 로 자

1995년 2월 20일.